

‘새로운미래’ 강령

정강 · 정책

(2024년 2월 4일)

전 문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만들었다. 전쟁과 빈곤을 넘어 산업화를 이룩했다. 독재와 폭정을 넘어 민주화를 쟁취했다. 대한민국은 경제강국, 민주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당당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팍으로 일군 경제성장과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활기차게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 현재의 정치, 경제, 미래의 삼중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켜야 한다. 어두워지고 있는 위기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살려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환경과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20세기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립과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상식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여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이며,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 건설적인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실력 있는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여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비전을 향해 아래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여건을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역량 국가를 건설하겠다. 역량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한다. 역량 국가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공정과 공공선을 높이며, 효율과 형평의 합리적 균형을 만들 것이다.

둘째, 분단국가, 동맹국가, 반도국가, 통상국가 중의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닌 중층외교의 관점을 견지한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대립 구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민첩하면서도 영민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외교를 추구한다.

셋째, 음악·음식·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문화강국의 면모를 더욱 강화한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문화가 지속적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의 필요 충족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의 사회 보장 원리에 따라 재난·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라 촘촘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책임정치를 실천한다.

다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저출생·고령화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인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지역·교육·의료·복지 등의 각종 격차를 해소한다. 일·생활의 조화뿐 아닌 역동적 혁신성장의 기초를 유지해 지속 가능한 경제·주거·안전·복지 생태계를 만들겠다.

여섯째, 명백하게 예고된 지구적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명·재산을 지키는 산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국민적 숙의·공론·합의의 참여 정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대를 앞당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겠다.

우리는 위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며, 당내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다.